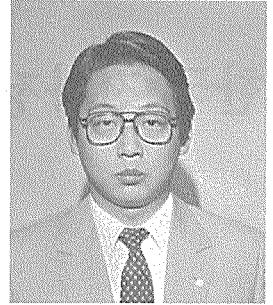


기회를 제공해 주는 변화의 시기



곽정소/ 본회 비상근 이사
한국전자(주) 사장

최근 기업의 환경변화는 1분 1초도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93년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국내에서는 지난 2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를 위한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개혁작업의 성공여부를 경제에서 판단할 정도로 경제분야의 개혁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제경쟁은 더욱 격화되어 수요부족, 실업자 증가, 엔고 등으로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전체 경제성장의 둔화는 전자산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트업계의 수출둔화, 내수침체와 함께 엔고로 인한 반도체의 성장을 제외하고는 부품업체도 지난해에 이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강화되어 간다는 데 있다. 특히 전자산업은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기업환경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우리 나라 전체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기에 변화의 방향을 읽

어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당사를 비롯해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각 기업들이 한창 대응방안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더욱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첫째, 생산거점의 해외현지화다. 전자산업은 국내에서의 판매로는 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출증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EC, NAFTA 등 해외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산거점의 해외현지화는 필연적인 대응방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기업의 해외현지화를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품질수준의 향상이다. 우리 기업들의 품질수준은 아직 해외 선진기업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의 불량 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 제공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최근 각 기업들은 해외에서 그 품질수준을 보증하는 ISO 9000시리즈를 속속 인증 받으며 과거 품질관리에서 벗어나 품질경영 차원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이다. 전자산업에 있어 기술은 생명이다. 지금 2000년대를 앞두고 전자제품의 한 차례 교체를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전쟁이 한창이다. 이는 전자산업내의 혁명과도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반영시켜 주고 있는 것인데 선진 기업들은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을 우려해 각종 규제로 기술이전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기술개발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신제품 개발과 함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의 국산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힘들다.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식 전환을 바탕으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일관된 정책 실시 등 기업의 발빠른 움직임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변화가 격심한 오늘날과 같은 시기는 그 위험도가 높은 반면, 제도 약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제공해 준다. 변화가 많았던 지난 93년을 슬기롭게 보낸 전자업계의 종사자들이 또 한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길 기대한다.